

江原文化로 본 中原文化의 位相*

김 의 숙*

I. 문제 제기
II. 중원문화의 우월성과 동질성
1. 중원문화에는 중심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2. 중원은 강원도와 함께 한때 고구려문화권이었다
3. 중원과 강원도 영서남부는 남한강문화권이다
4. 중원문화권의 남한강은 경제교류의 중심이었다
5. 남한강계인 중원은 아라리문화권이다
III. 맺음말

I. 문제 제기

‘중원문화(中原文化)’라는 어휘는 일반적으로 ‘중원군(中原郡)’ ‘중원경(中原京)’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 ‘중원칠층탑(中原七層塔-中央塔)’ 그리고 찬란한 불교문화재(佛敎文化財)가 존재하는 ‘충주권(忠州圈)’의 문화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중원문화’라는 명칭은 확실히 정착하였으되 문화적 범위와 특성을 추출하여 일반화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이에 대하여 수차례의 학술회의에서 논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그러한 문제점은 비단 중원문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강원도의 경우도 ‘강원문화’라는 상위층의 개념 아래 ‘영서문화’와 ‘영동문화’로 구분하고 나아가 ‘영서북부문화’, ‘영서남부문화’, ‘영동북부문화’, ‘영동남부문화’ 등의 갈래로 나누어 문화적 특수성을 찾고자하는 노력이 한창이다. 그리고 ‘강원학(江原學)’이라는 상위학(上位學) 아래 원주학, 춘천학, 강릉학 등 지역학(地域學)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시도가 한창이고, 이제 그 틀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1)

그런 의미에서 충북문화(忠北文化), 사군문화(四郡文化), 중원문화(中原文化), 호서문화(湖西文化) 등의 개념을 속히 정립하여 문화창달이라는 미래적 방향으로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웃사촌의 입장에서 그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돕기 위한 시고(試考)로서 집필한 것이다. 때로는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본 관점이 문제의 해결을 앞당기거나 진실의 파악을 쉽게 만든다. 본고는 그런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중원문화에 대한 논의는 중원문화권에서 강원문화 특히 영서남부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본고는 중원문화의 독자성을 위주로 하되 강원문화와 중원문화의 동일성(同一性)의 회복(回復)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음을 밝힌다.

* 이 글은 「통일시대 ‘중원문화권’의 위상정립 및 발전계획에 관한 워크숍」에서 발표(2001년 8월31일)한 논지를 보완한 것이다.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강원문화학에서 특이한 것은 이상의 분류에 대하여 지역의 학자들이 별다른 異意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적인 차별성을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百里不同風’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역마다 지닌 독자적인 문화체계를 인정하고, 지방화시대 또는 지방문화의 부각이라는 시대적 추세를 인정하고 부응하는 조치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II. 중원문화의 우월성과 동질성

1. 중원문화에는 중심(中心)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신라의 진흥왕은 중원에서 고구려의 세력을 밀어내고 557년(진흥왕18년) 오소경(五小京) 중의 하나인 국원소경(國原小京)으로 삼고 북진을 계속하여 그 영토가 마운령비와 황초령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의 함경도에까지 이르렀다. 문무왕 13년(673)에는 전략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원성(國原城)을 쌓고, 757년(경덕왕)에는 중원경(中原京)으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문성왕 때 나라의 중앙임을 표시하려고 지금의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에 7층석탑(국보6호)을 세우고 '중앙탑(中央塔)'이라 하였다. 곧 중앙탑은 중원이 통일신라시대의 중앙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지역민들이 '중앙인(中央人)'이라는 자부심 곧 양반의식을 지니게 된 시발점이다. 2)

이러한 중원은 북으로 강원도의 원주, 경기도의 여주, 북서로 제천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중원, 원주, 제천, 여주 등은 공통분모를 지녔는데, 그것은 이들이 남한강문화권(南漢江文化圈)에 속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원(충주)은 한국 최대의 다목적댐인 충주댐과 수려한 달천(達川)을 보유하고 있는, 남한강문화권의 중심축이며 남한강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6월에 강원도에서는 '물심포니'라는 물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이는 21세기가 '물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시도한 첫번째의 '물문화잔치'이다. 금년도 전반기에 있었던 흑심한 가뭄에서 그 조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듯이 21세기는 '물'이 삶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물의 시대에 있어서 중원(충주)은 물의 중심지로서 부각될 것이고,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중원은 강원도와 함께 한때 고구려문화권이였다.

역사적으로 중원지역과 강원도는 한때 북방문화계인 고구려문화권에 소속되어 있었다.

중원지역은 삼한시대에는 마한(馬韓)에 속하였고, 삼국시대에는 먼저 백제의 영역이었으나 가금면 용전리에서 발견된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가 475년(장수왕63)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장수왕 때에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되어 있었다. 그리고 신라의 진흥왕 때(553년)에 지금의 충주·도안·진천 일원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신라에 소속되었다. 곧 중원은 강원도가 예맥(濊貊)에 속하였을 때 마한과 백제에 속하였고, 고구려에 속하였을 때는 한때 함께 고구려권에 있었다. 그리고 진흥왕 이후로는 두 지역이 지속적으로 동일국가권에 있었다.

그러므로 중원권과 강원도는 '신라'라는 동일국가권에 소속되기 이전에 대략 80여년 동안 '고구려권'에 속하였다. 그런 연유로 중원에는 문화사적으로 '고구려'를 포함한 북방문화의 영향이 나타난다. 곧 중원지역에는 지명이나 산성의 축조, 민속신앙에 있어서 북방계의 성향이 나타난다. 3) 또 국가 개념이 없거나 미약했던 고대 선사시대와 부족국가시대에도 북방계의 영향을 받은 흔적

2) 구비전승에 의하면, 신라 원성왕 때 통일신라의 중앙부위를 설정하기 위한 확인방법으로 국도의 南北極端部에서 健脚의 암자를 同日同時刻에 같은 속도로 출발시켰던 바 이곳에서 마주쳤으므로 중앙탑을 세웠다는 것이다. 또 탑이 있는 마을인 탑평리의 계천을 남북 극단에서 半이 되는 곳에 있으므로 '반내(半川)'라고 한다는 것이다 (허정강, 전설지-제천, 단양, 충주, 보은, 괴산을 중심으로-, 1996, 한국국악협회 제천지부, 158쪽). 민간에 전승하는 이러한 中央意識(中原意識)이 兩班意識으로 전이되었으리라는 안휘준 교수의 견해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김현길, 중원문화권 제설의 검토, 충북학(2집), 21쪽]

3) 이창식, 충북지역의 민속 특성과 문화권 모색, 충북학(2집), 48쪽

이 나타난다.

1980년에 전개된 충주댐수몰지구에 대한 발굴조사 이후 1990년대에는 양평 병산리 구석기유적과 충주 조동리 유적의 조사 등을 통한 연구의 결과로 가장 먼저 사람이 산 곳이 바로 남한강일대임이 밝혀졌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선사문화는 구석기 → 신석기 → 청동기시대에 걸치는 연결이 가능하여졌다. 4)

충주시 동량면 지동리의 제천천변에서 발견된 <중원하천리유적中原荷川里遺蹟>의 출토유물은 북한강유역의 중도·마장리·이곡리의 주거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와 유형이 같다. 또 철제팽이는 장방형의 주조(鑄造)이고, 팽이머리에 주머니처럼 구멍이 있는 공부형은 중국의 전한대(前漢代)에盛行하던 형태라고 한다. 5)

충주시 신니면 견학리 성밀마을에 있는 <중원견학리토성中原見鶴里土城>은 구릉을 이용하였으면서도 중국식 성의 특징인 평면 네모꼴을 이루고 있어서 다른 산성들과 구분된다. 곧 우리나라의 옛 성터로는 이러한 네모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토성은 중국문화의 영향이 컸던 어느 시기에 축조되었거나 국가의 발생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

한편 북한강 상류인 양구읍 상무릉리에서는 1987년에 대규모의 구석기유적이 발굴조사되었다. 거기서는 다량의 흑요석 석기와 석영 석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었고, 덜된 연모와 부스러기 석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석기 제작 행위가 직접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7)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상무릉리의 인근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는 흑요석 석기가 발굴되었다는 점이다. 본래 흑요석은 선사인들이 정교한 석기를 만들 때 쓰던 돌감으로서 백두산일대에서만 풍부하게 나타나는데, 선사인들이 이동하면서 지니고 다녔기 때문에 선사시대의 문화전파와 교류 및 사람의 이동관계를 알려주는 좋은 자료이다.

이러한 흑요석 석기가 북한강계인 홍천 하화계리와 남한강계인 단양의 수양개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는 석기시대에 흑요석 석기를 소유한 선사인들이 함경북도에서 동해안을 따라 내려와 북한강과 남한강 유역으로 들어와 살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8)

3. 중원과 강원도 영서남부는 남한강문화권이다.

남한강은 태백시의 창죽동 금대봉 '검룡소(儉龍沼)'에서 발원하여 골지천(창죽천)을 이루고, 이것이 정선의 아오라지에서 송천과 합류하면서 조양강을 이룬다. 그리고 조양강이 오대산의 우통수에서 흘러온 오대천과 정선의 나전에서 합류하여 흐르다가 정선읍 가수리(佳水里)에서 태백산에서 발원하여 흘러온 동남천(東南川)과 합류하여 동강(東江)이 된다. 그리고 평창강과 주천강이 합류하여 이룬 서강(西江)과 영월읍 하송리에서 만나 남한강(南漢江)을 이룬다. 이 남한강이 단양, 제천, 충주, 여주를 거쳐 팔당에서 북한강과 합수하고 한강(漢江)을 이루어 서해(西海)로 빠진다.

일반적으로 한강하면 '남한강'과 '북한강' 그리고 양수리에서 서해로 빠져나가는 '한강'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그러나 지리학에서는 이들 셋을 분류하여 부른다.

한강의 명칭은 어느 강보다도 다양하다. 앞의 《삼국사기》와 《세종실록지리지》에 제시된 한수(漢水)는 중국 양자강의 별칭인 한수(漢水)에서 빌려온 것이다. 한강의 명칭으로는 이밖에도 경강(京江), 대수(帶水), 아리수(阿利水), 열수(列水)가 있다.

경강(京江)은 서울을 끼고 흐르는 강이라는 뜻에서 온 것이다. 한강을 오르내리면서 장사하는

4) 한강유역사연구, 전국향토사연구협의회, 2000., 132쪽

5) 충주댐수몰지구문화유적발굴조사종합보고서, 충북대, 1984.

6) 文化財誌, 충청북도, 1982. 方形土城의 二例, 차용걸, 윤무병박사회갑기념논총, 1984.

7) 한강유역사, 앞책, 165쪽

8) 한강유역사, 앞책, 170-171쪽 참조

상인들을 경강상(京江商)으로 불렀다. 대수(帶水)는 우리나라의 땅 모양을 볼 때 한강의 위치가 사람의 허리띠에 해당하므로 생긴 이름이다.

고구려에서는 한강을 '알'과 '아라리'와도 상관성이 있어보이는 아리수라 하였고, 백제는 옥리하(郁里河)라 하였다. 신라에서는 상류를 이하(泥河)라 하고 하류를 왕봉하(王逢河)라 불렀으며, 또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리지>에 의하면 한산하(漢山河) 또는 북독(北瀆)이라고도 하였다.

고려 때에는 큰 물줄기가 맑고 밝게 뻗어내리는 긴 강이라는 뜻으로 열수(列水)라고 하였으며, 모래가 많아 사평도(沙平渡) 또는 사리진(沙里津)이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한강을 서울강(Seoul River)으로 기록한 외국의 문헌도 있다.

인류의 문명은 강(江)을 배경으로 하여 발상(發祥)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문명은 황하와 양자강에서, 에집트 문명은 나일강에서 비롯하였듯이 「한강의 기적」으로 일컫는 한국 문명은 한강을 배경으로 발상하였다.

한강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에서 비류와 온조가 도읍지를 정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사료이다.

“생각하건대 이곳 강 남쪽 땅은 북으로 한수(漢水)를 떠났고 동으로 높은 산악에 의거하여 있으며 남으로 비옥한 들밭이 바라보이고 서쪽으로 큰 바다가 막혔습니다. 이러한 천연 요새로 된 좋은 땅이야말로 얻기 어려운 것이니 여기에 도읍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9)

한강의 강점(強點)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점 때문에 통일신라, 고려, 조선왕조처럼 한강을 완전히 소유한 왕조가 한반도를 통일하였다. 10) 그렇다면 한강이 단지 군사적 요충지로만 작용하였다면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기적은 한강이 다양한 문명과 문화가 만나는 교류의 장(場)이었기에 가능하였다. 다시 말해서 한강은 빈번한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포용한 발전 가능태(可能態)로서 존재하였으므로 기적을 창출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4. 중원문화권의 남한강은 경제교류의 중심이었다.

과거에 남한강은 뗏목과 황포돛배라는 경제가치체의 운반 수로(水路)였다. 한강을 수운로 이용한 경우는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뗏목을 운반하는 통로요, 둘째는 세곡을 한양으로 운반하는 공적(公的)인 통로이며, 나머지는 경강상(京江商)들의 상업적 통로이었다. 남한강을 통해 마포에서 하역된 소금이 강원도의 오지에 전달되고, 백두대간의 거목이 뗏목으로써 한양에 이르렀다.

남한강은 백두대간에서 별목한 목재를 한양까지 운반하는 수로이었다. 그때의 목재는 뗏목으로 엮어져 운반되었는데, 이를 수상목(水上木)이라 하고, 장목전(長木塵)에서 취급하였다. 11)

9) 惟此河南之地 北帶漢水 東據高岳 南望沃澤 西阻大海 其天險地利 難得之勢 作都於斯 不亦宜乎 (삼국사기, 권제23, 백제본기제일)

10) 백제는 한강 유역인 하남위례성에 도읍을 정하였으나 고구려에 밀려 남쪽으로 천도하였고, 백제를 밀어낸 고구려는 한강 점유 77년 동안 지금의 서울땅을 남평양 곧 남경으로 삼았으나 신라에게 밀렸다. 고구려에 이어 서기 554년에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가 北漢山州를 설치하고 강력한 군단을 배치함으로써 마침내 삼국을 통일하였다.(김영상, 한강의 역사와 미래, 한강의 역사문화 재조명, '98서울역사문화학술대회, 6쪽)

11) 뗏목이란 “목재·대나무·풀 등을 배열하여 물 위에 띄우는 구조물의 총칭”으로서 육로(陸路)보다 수로(水路)가 효과적이었던 옛날의 교통수단이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뗏목은 주로 주민들과 화

《세종실록》에 “강원도의 백성들은 매년마다 농한기에 목재를 베어내어 뗏목을 만들어서 하류로 보내어 서울에 이르게 해서 판다. 혹자는 이것을 전업으로 삼는다.” 12)고 한 것을 보면 일찍이 수로를 이용해서 목재를 운반한 것을 알 수 있다.

남한강 뗏목은 오대산·청옥산·두타산 등지에서 벌목한 원목을 그대로 정선의 송천과 골지천으로 흘러보내었다. 그리고 아오라지에서 한테 모아 이른바 ‘골안떼’라 해서 뗏목을 지어 조양강과 동강을 거쳐 서강과 동강이 모이는 영월읍내의 합수머리에 있는 덕개(덕포)에 집결시킨다. 그리고 거기서 바닥을 넓혀 묶어서 남한강으로 해서 서울로 날랐다.

한강의 뗏목을 목적지인 서울까지 나르는 기간은 빠르면 열흘, 강물이 줄어 버리면 25일에서 달포 정도나 걸렸다. 뗏목에는 앞뒤에 사공이 타는데, 그들은 노를 움직여 뗏목이 나가는 방향을 잡는다. 폐사공은 특히 노련한 전문가여야만 하므로 서울에 도착해서 운송책임자인 강주인이나 목상에게 받은 고전(공가)은 당시에 쌀 세 가마값 정도로 높았다. 그래서 뗏꾼들이 들르는 나루터마다 주막이 있었고, 그곳의 주모와 석쟁이(작부)의 웃음과 교태가 뗏꾼의 객고를 풀어 주었다. 충주의 나루터는 ‘목계’가 가장 번창하였다.

뗏목이 한강에서 사라지게 된 것은 철도가 개설되어 목재를 철도로 운반하고 또 곳곳에 댐이 생겨서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오늘날 열리고 있는 춘천의 소양제, 인제의 합강제, 정선의 아리랑제, 영월의 동강뗏목축제 등에서 뗏목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다. 13)

과거에 한강은 세곡을 운반하는 조운로(漕運路)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왕조의 이태조가 도읍을 계룡산으로 옮기려다가 그만 둔 것은 그곳이 세곡(稅穀)을 포함한 물자를 수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이며, 14) 상대적으로 한양은 조운로가 발달되어 있어서 도읍지로 선택된 것이다. 15)

남한강에서는 영월, 정선, 평창 등지에서 징수한 세곡을 동강의 뱃길을 이용하여 원주의 부론면에 있는 흥원창(興原倉)으로 옮기고 여기에서 또다시 원주와 횡성 등지의 세곡과 합하여 마포의 경창(京倉)으로 옮겼다. 과거에 흥원창에는 세곡 200섬을 운반할 수 있는 대형 수송선(길이 50척 이상, 폭 10척3촌 이상)이 21척이나 있었다. 16) 영남의 조세곡의 운반에 있어서도 남한강을 이용하였다. 곧 낙동강의 수운을 따라 상주까지 운반한 뒤에 조령을 넘어 충주의 가흥창(可興倉)으로 운송하고, 다시 남한강 수로를 따라 용산의 경창까지 참운(站運)하였다.

남한강은 상류지역에서 징수한 전세(田稅)와 대동미를 운반하는 수로로서의 기능 외에도 17세기 이후에는 전에 없이 발달한 상업 탓으로 수운(水運)을 이용한 경강상(京江商)들의 상행위가 빈번하였다. 물론 철도 도입 이후 한강 수로의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댐이 건설됨으로써 수운로(水運路)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지만 과거에는 등짐, 봇짐, 길마, 수레 수준의 육로 교통보다 훨씬 큰 교통로였다.

학계에서는 한강수로의 이용 빈도와 물자 유통량은 다른 어느 강보다 많은 이유로 셋을 들 수

물을 실어나르는 기능을 가진데 비하여 한강의 뗏목은 순전히 목재 그자체를 나르는 운반수단이였다.

12) 江原道之民 每當農隙材作 沿流而下 至京江賣之 或有全以此爲業者 [세종실록, 세종20년8월 병인條]

13) 인제군이 제3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1985년)에 뗏목 운반의 전과정을 놀이화하여 ‘뗏목놀이’를 출연시켜 대상을 받았고, 그것이 무형의 민속문화로 전승되고 있다.

14) 동국여지승람, 연산현 산천條에 이르기를, “태조 초에 왕위에 올라 남쪽에 도읍을 옮기려 하였으나 ...조운로가 멀어 그만 두었다.”고 하였다. (太祖初 卽位慾移都于南山 漕運路遠而罷之)

15) 태조실록, 권6 3월8일 신묘년에 좌정승 조준 등이 이르기를, “가만히 한양을 보건대 표리산하(表裏山河)의 형세가 훌륭하다고 일컬어 왔고, 사망으로 도리(道里)가 균등하고 배와 수레의 교통도 좋으니 이곳에 정도(定都)해야 합니다.”고 하였다.

16) 김의숙 외, 동강의 전승문화와 역사기행, 강원대학교출판부, 2000.,159쪽

있다.

첫째, 하류에 전국 최대의 시장인 서울과, 중상류에 광주·여주·원주·충주 등 비교적 큰 도회가 위치하고 있어서 항상 일정 정도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둘째, 모든 간선도로가 서울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로와 도로의 연계가 양호하였다.

셋째, 한강 하류와 서해안 지역의 수산물과 한강 상류의 발작물이나 임산물이 자연스럽게 교역될 수 있도록 생산특화가 잘 이루어져 있었다.

한편 남한강 수로는 상업적 활동무대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운반수단으로서 대표적인 짐배는 황포돛배이었다. 바람을 이용한 황포돛배는 해마다水路 조건에 따라 달랐지만 북한강은 북한의 금성까지, 남한강은 영월까지 운행이 가능하였으며, 규모가 큰 경강선은 충주(忠州)를 유통거점으로 두고 활동하였다. 17)

5. 남한강계인 중원은 아라리文化圈이다.

남한강은 강원도의 산간문화와 이웃의 중원문화 내지는 한양의 도회문화를 연결하는 끈이었으며 매개자는 뗏꾼과 경강상인들이었다. 대부분이 강원도 산골 출신인 뗏꾼들은 때론을 풀면서 강원도 아라리가락을 전파하고, 그들이 접한 도회의 신문명을 산골에 소개하였다. 나아가 경강상인들은 문화의 연계자, 전파자, 혹은 창조자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정선아라리> 중 <워음아라리> 하나를 보자.

우리집에 서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 씨구씨구 모자 씨고(쓰고)
깎구깎구 머리 깎구(깎고) / 짚구짚구 단장 짚구(짚고)
모가지 상나무 지게 위에 / 엽전 석 냥 짚어지고
정선읍내 소금 사러 가셨는데 ~ / 아홉개 장 열두나 돌다리
부디 잘 다녀 오세요.

목계나루터의 객주집과 마포의 색주가에서도 흘러나오던 <워음아라리>의 노랫말 중 “정선읍내 소금사러 가셨는데 ~”에서 보듯이 식생활에 있어서 필수품인 소금을 황포돛배가 강원도의 산골에까지 운송하였다. 그리고 돛배가 도착하면 강나루터에서는 한마당 축제판이 벌어졌다. 18)

남한강 유역에 있는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의 나룻배터는 내륙에 소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시장터였다. 그래서 소금배가 도착하면 장이 서고 소금 한 말에 쌀 한 말씩 또는 담배나 콩팥과 물물교환하면서 흥청거렸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3년에 한번씩 사월초파일에 별신제와 난장을 벌이고 ‘끼줄다리기’를 벌임으로써 장터의 번영과 풍요를 기원하였다.

끼줄다리기는 뱃터 인근의 마을끼리 끼줄이라는 줄을 만들어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서 벌이는 줄다리기 시합이다. 며칠씩 승부내기를 하였다. 끼줄다리기는 줄다리기에 끼면 득남한다고 해서 멀리서도 참가하였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액을 막기 위해 끼줄을 강물에 띄우는 ‘용내림’을 하여 배의 무사왕래(無事往來) 및 우순풍조(雨順風調)를 빌었다. 19)

17) 한강의 사회문화사, 문화예술, 2000년 가을호, 경기문화재단, 44쪽

18) 북한강 유역에 있는 화천군의 하리 뱃터(냉경기)에 소금과 생필품을 가득 실은 배가 도착하면 市場이 서고 물물교환이 이루어졌으며, 만남의 장소로 흥청거렸다. 화천군에서는 그러한 풍속을 <냉경기소금배오는날>이라 하여 지역의 전통민속으로 기리고 있다.

19) 김의숙, 한국민속제의와 음양오행, 집문당, 1993, 88쪽

이것으로 볼 때 남한강은 수운로로서의 기능을 지니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민속문화를 창출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아울러 갖고 있었다. 20)

중원의 대표적인 민요인 <알라성>에도 <정선아라리>의 영향이 현저히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중원지역의 대표적인 민요는 <절우자>와 <알라성>이다. 전자는 <모찌는소리>로서 여럿이 후렴구를 주고받으며 부르는데, 리듬이 유연하며 약간 잦아진 장단으로 불리는 것이 특징이다. 후자인 <알라성>은 모심는 노래로서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로 반복되는데, 얼핏 들으면 강원도아리랑과 비슷한 리듬 같으면서도 중원지역 특유의 멋이 느껴지는 노래이다.”²¹⁾

임동철 교수의 견해대로 <알라성>은 전체적으로 <정선아라리>의 가락과 비슷하다.

아라리요 아라리요 아리랑 얼싸 아라송아
아라리아 아라리요 아리랑 어혈싸 아라송아
이 못자리에 모를 씻어 저 논배미다 옮겨 심을제
아라리요 아라리요 아리랑 얼싸 아라송아
이 논배미다 모를 심어 장잎이 훨훨나서 영화를 보세
아라리요 아라리요 아리랑 얼싸 아라송아
높은 들에는 밭을 지고 깊은 들에는 논을 저서
아라리요 아라리요 아리랑 얼싸 아라송아
오곡잡곡에 농사를 지을제 해마다 연년이 풍년만 오거라
아라리요 아라리요 아리랑 얼싸 아라송아 22)

위 노래에서 특히 후렴구의 가락은 아라리의 가락을 그대로 차용하였다고 할 정도로 유사하다. 이로 볼 때 남한강수계를 통한 문화의 전파가 양지역간에 원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III. 맺 음 말

한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두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다. 한강은 양수리 두물머리 아래의 한강만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는 상류인 남한강과 북한강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이고 중원문화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

중원문화권은 남한강수계로서 남한강의 최상류인 강원영서남부와 연결되어 있어서 문화적·경제적으로 수수관계(授受關係)에 있었다. 특히 남한강은 뗏목과 황포돛배의 수로로서 산간지역에 타지의 문화가 유입되는 통로이었으며, 한양의 번창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또 한강의 수로를 통하여 세곡이 한양으로 운반되었다. 그리고 경강상들은 소금이나 어류 및 생필품을 내륙으로 운반하고, 내륙의 곡식을 한양으로 운송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강원도의 목재가 남한강을 통하여 뗏목으로 한양에 공급됨으로써 뗏감은 물론이고 건축문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강원도아리랑’이 중원에 퍼져 농업노동요에 끼어들었고, 민속신앙도 형태도 전파되었다. 그런가

20) 이창식 교수는 “남한강의 물길은 뱃길로서 문화교류의 통로이고, 배가 닿던 나루터는 전승물의 집약적인 통로”라는 견해를 발표한 바가 있다.[이창식, 남한강 유역의 전승문화에 대하여, 한강의 역사문화 재조명(’98서울역사문화학술대회), 79쪽 참조]

21) 임동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2), 정신문화연구원, <충주민요條>, 669쪽

22) 한국민요대전, MBC, 중원 모심는소리, 신니면 마수리 채보(1995), 221쪽

하면 강원도와 중원지역은 80년간 함께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언어상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산이나 언덕에 해당하는 '덕' 또는 물(水)에 해당하는 '미'나 '매'가 들어있는 지명이 나타난다.

앞으로 중원지역은 하루속히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다양한 문화를 종합하여 독자적인 문화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그것을 바탕으로 중원문화의 창달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물의 세계'인 중원지역은 21세기에 도래할 '물'의 시대를 맞아 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